



WWF

세계자연기금

REPORT

KR

2016

우리의 미래, 지속가능발전목표

새로운 국제 발전 아젠다에서
환경적 측면이 갖는 중요성

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WWF는 스위스에 국제본부를 둔 세계 최대규모의 자연보전기관으로, 전 세계 100개국에 500만명의 회원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보전을 주목적으로 1961년 설립된 WWF는 현재 기후·에너지, 해양, 숲, 물, 음식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의 자연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보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류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미래를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WWF는 2014년 공식적으로 한국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1600+ 판다와 어스아워(Earth Hour, 지구촌 전등 끄기) 등 대중들이 자연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비롯하여, 해양보전과 기후·에너지 이슈에 집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행인 : 윤세웅

발행처 :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WWF-Korea)

원본 작성 : WWF-Colombia

번역 감수 및 수정 : 성혜승, 김정현, 이승우

발행일 : 2016년 11월

원본 디자인 작업 : El Bando Creativo

국문 디자인 작업 : 베스트셀러바나나

표지 사진 : © Brent Stirton / Getty Images

후표지 사진 : © NASA

발간 관련 내용 : 본 보고서에는 WWF-Colombia가 2015년 8월에 스페인어로 발간한 “El ABC de los Objetivos de Desarrollo Sostenible: La Importancia de la Dimensión Ambiental en la Nueva Agenda Mundial de Desarrollo” 보고서 중에서 수정, 번역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전체를 복제하거나 일부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 인용 표시를 참고하시어 출처를 명시하고 위에 열거된 기구에 저작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인용 표시 : WWF, 2016, 우리의 미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새로운 국제 발전 아젠다에서 환경적 측면이 갖는 중요성
© Text and graphics: 2016, WWF. All rights reserved.

본 보고서를 교육 및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출판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허가를 요하지는 않으나 WWF 측에 사전 서면고지 및 출처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허가 없이 본 보고서를 재판매 또는 기타 상업적 목적의 재출판하는 것은 금합니다.

원본 ISBN

서적 : 978-958-8915-20-3

E book : 978-958-8915-21-0

목차

서문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2015년	3
지속가능발전목표 알아보기	6
환경적 측면에서 바라본 지속가능발전목표	14



서문



© WWF-Korea / Suk Joon Jang

우리의 행복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문명과 기술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백만 인구는 하루 해결할 끼니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UN SDSN)'는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사회적 포용성, 정의, 합당한 거버넌스,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높은 포용력을 가진 사회, 정의로운 사회, 풍요롭고 안전한 자연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유엔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이러한 맥락에서 인류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의제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우리 사회가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전하기 위한 목표이며, 총 17개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경제적인 측면을 우선시하였던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제-사회-환경을 아우르는 '발전'을 추구하게 된 것은 인류사에 길이 남을 의미있는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환경의 변화(생물다양성 손실, 극한 기후 현상 등), 자연자원의 고갈은, 인류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달성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측면은 인류의 보건과 안전에 직결되며,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이를 예측 혹은 대비하는 것이 다소 어렵기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는 데에 있어 환경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환경-사회-경제의 복합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의 목표를 달성하여, 더 많은 인구가 더 행복한 사회에서 살게 될까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193개 유엔 회원국은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정부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순조롭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및 여러 관련 분야 종사자(학계, 과학계 및 민간분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발전 아젠다는 활발한 참여와 포용성, 혁신적인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이 국가, 국제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를 공개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발전 아젠다를 분석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겠지요.

새로운 발전 아젠다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짚어줘야 할 도전과제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우리나라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세계자연기금이 그 움직임에 함께하겠습니다.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대표 윤세웅

지속가능발전목표와 2015년



© PRO/Ifiker



SDGs는 현세대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수요까지도 보장하기 위한,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세운 세계 공동의 발전 목표이다.

2015년 9월, 향후 15년간 전 세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체결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현세대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수요까지도 보장하기 위한,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세운 세계 공동의 발전 목표이다.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지속성을 모두 추구하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발전을 표방한다. 이는 2000년에 채택되었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의 후속 목표로,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달성할 목표이다. 이에 따라 'Post-2015 발전 아젠다', '2030 발전 의제'라고도 불린다.

연대기적으로 SDGs가 MDG의 뒤를 잇는 목표임은 틀림없으나, SDGs는 내용상 보다 폭넓은 사회 문제를 다룬다는 것, 다양한 가치(경제, 사회, 환경)를 복합적으로 추구한다는 것, 유엔 회원국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이행해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SDGs는 MDG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간 국제 발전 아젠다라고 할 수 있다.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발전'을 향한 사고 전환, 의식 개혁, 사회 포용적 접근, 복합적 정보 교환 등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유례없는 길을 걷고 있다. 이전까지 다양한 국제적 이슈들에 대해 이렇듯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인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전 인류가 해결방안 모색 및 공익 추구를 위해 일신하고 협력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책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이에 따라 SDGs의 개념과 이것이 인류에게 가져올 기회와 가능성을 소개하고, SDGs의 환경적 요소가 전 세계 사회·경제 발전의 공간으로서 지니는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까지

2000년 세계 정상들은 빈곤 퇴치를 위해 새천년개발목표(MDG)를 채택하였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퇴치에 관련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국제 결의라고도 평가되고 있다. 이는 총 8개의 실천 목표로 구성된 15개년 개발과제였다.

새천년개발목표(MDG) :

- 

1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
-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 

3 성 평등과 여성 능력의 고양
- 

4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 

5 산모 건강의 증진
-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이러한 목표들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유엔의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에서 언급된 MDG의 성과는 상당하다. 2000년 대비 2015년, 하루 수입이 1.25 미국 달러(한화 약 1,380원) 미만인 인구가 47%에서 14%로 감소하였고,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수는 전 세계 1억 명에서 5천 70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1990년 1천 270만 명에 육박하던 5세 이하 영유아 사망자 수는 2015년 600만 명으로 줄었으며, 2013년 에이즈 감염자 수는 2000년 대비 약 40%나 감소하였다. 나아가 1990년 이후 약 19억 명의 사람들에게 식수원을 공급해 주었으며, 2000년 810억 미국 달러(한화 약 89조 원)에 머문 공적개발원조(ODA)를 2014년 1천 350억 미국 달러(한화 약 149조 원)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모두 MDG의 성과 중 일부에 해당한다.

하지만 여전히 성 불평등,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여러 현안이 인류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 빈부 격차 및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도 여전히 존재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초생활도 보장받지 못한 채 극심한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MDG 이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무렵, 201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서 MDG의 후속 발전 목표인 SDGs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SDGs의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규정하기 위하여 포괄적이고 투명한 범정부적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를 담은 Rio+20의 결과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발표하였다. 2012년부터 3년간 193개 유엔 회원국은 SDGs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 9월에 유엔총회에서 SDGs를 공식 채택하였다.

새로운 아젠다 SDGs는 전 인류의 안녕을 위해 고안된 것이며, (민간, 학계, 시민단체, 시민, 정부, 소수민족, 소외 계층 등) 그야말로 모든 이에게 커다란 기회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SDGs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5년간 약 172조 5천억 미국 달러, 즉 연간 약 11조 5천억 미국 달러(한화 약 1경 2천 7백조 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 다자개발은행,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이 SDGs 이행을 위해 4천억 달러(한화 약 441조 원)가 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새로운 아젠다는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전 세계인에게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 Shutterstock / ArtisticPhoto / WWF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

2015년에는, 인류의 안전한 미래에 대한 포부 및 공약의 수위를 결정하고 새로운 발전 체제를 구축하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아래 나열된 세 가지 총회가 바로 그 예이며,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개발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및 합의는 SDGs의 성공적인 이행에 밑바탕이 되며, SDGs의 채택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야심차고 견고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정치적인 모멘텀을 제공하였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인 채택과 자발적인 비준은 SDGs의 달성에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아디스아바바, 뉴욕, 파리에 걸친 정치적 여정은 인류 발전사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남을 것이다.



개발자원총회 (FfD) 2015.07.13-16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 열린 제3차 개발자원총회에서는 국가적, 국제적, 그리고 공공, 민간 재원의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원들은 인류의 복지를 향상하고 기초 생활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차 개발자원총회의 주요 안건은 Post-2015 발전 아젠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이었다.



유엔 개발정상회의 2015.09.25-27

뉴욕: 유엔 개발정상회의이자 제 70회 유엔총회에서 Post-2015 발전 아젠다, SDGs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UNFCCC) 2015.11.30-12.11

파리: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유엔 회원국들이 2020년 발효를 목표로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알아보기

기본 정보와 배경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핵심이 되는 축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 가지 축은 환경, 사회, 경제이며 이 셋의 공통분모라 할 수 있는 네 번째 축은 바로 견고한 거버넌스와 글로벌 파트너십이다.

지속가능발전이란?

1987년 유엔 브룬틀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에서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 정의하였다.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지속가능발전은, 더욱 평등한 자원 배분 방식을 통해 가장 도움이 절실한 계층을 포용한 발전과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 이 중에서도 사회적 평등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정치 제도가 바탕이 되어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은 정치적 의지와 변화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을 고려하는 경제 성장, 사회 구성원들이 지구 생태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생산과 소비, 금융, 정책 등 각 분야에서 환경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가능하다.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이유

새천년개발목표(MDG)는 고무적인 성과(극심한 빈곤을 벗어난 인구 10억 이상, 개발도상국에서의 약 91% 학교 등록률, 전 세계 인구의 91%가 보다 나은 식수원을 공급받고 있는 등)을 남겼다. 그러나 애초 설정한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다. MDG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목표들로 이루어져, 모든 국가의 폭넓은 참여와 국제 사회의 책임의식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MDG에 기여하고자 적극적인 정책과 전략을 펼칠 타당성이 부족했던 것이다. 또한, 국제적 재정 및 경제 위기,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하,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각국의 정치·사회 상황, 기후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타격을 받기도 하였다.

새천년개발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차이점

새천년개발목표(MDG)는 8가지, SDGs는 총 17가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MDG가 빈곤 척결을 위한 우선 과제를 위주로 구성되었다면 SDGs의 실천 목표는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회계층을 포괄하였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능력과 조건들을 고려한 이행을 지향한다. MDG와 근본적으로 다른 SDGs의 특성은, 기존 개발목표에서 주를 이루었던 경제적 목표에 사회 번영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접목하면서 이전보다 사회 포용성과 환경적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가 전 세계에 지속가능성을 급속히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기본 원칙

Rio+20 정상회의에서는, MDG라는 선례를 분석하여 실천 지향적이고 간결하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이행해야 하는 야심찬 목표들을 SDGs 목표로 설정하였다.

SDGs는 인간과 지구를 위한 17개의 목표, 169개의 세부 목표로 이루어졌으며, 15년 동안 국제 사회가 경제-사회-환경을 균형있게 통합한 발전 과제를 이행 및 달성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이 발전 목표는 기존 개발 패러다임을,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발전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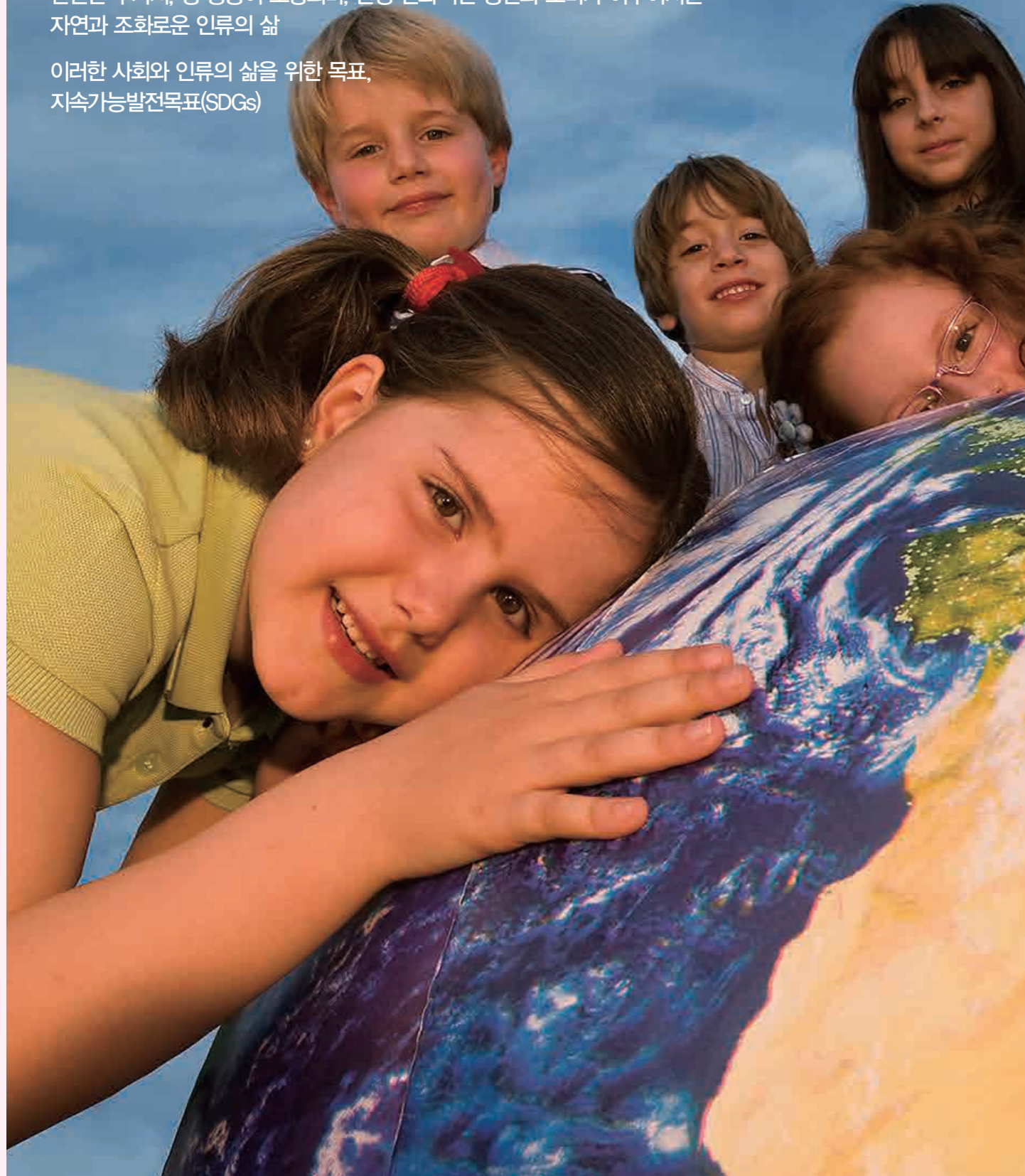
이 발전 과제는 정부, 학계, 시민 사회,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2030년 오늘에는, 더 안정적인 경제,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 건강한 자연 환경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기대한다.

2030년

빈곤, 기아, 질병,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모두에게 양질의 초등 교육이 제공되고, 누구나 기초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안전한 식수와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접근 할 수 있는 사회

안전한 주거지, 성 평등이 보장되며, 환경 친화적인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자연과 조화로운 인류의 삶

이러한 사회와 인류의 삶을 위한 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Francisco Márquez

주요 회의체

유엔 고위급정치포럼

2012년 7월 유엔 사무총장이 창설한 Post-2015 발전 아젠다에 관한 유엔 고위급정치포럼(UN High Level Political Forum)은 'SDGs 진행 보고서(SDGs Progress Report)'와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검토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적합한 이해관계자와 주요 그룹이 이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Post-2015 발전 아젠다에 대한 목표별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협의체 의견 종합 및 권고사항을 제출함으로써, 아젠다 이행에 중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 외교부 장관, 시민사회 대표, 과학계 종사자, 민간분야 대표들을 포함한 총 27개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2010년 유엔총회에서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의해 마련된 정치적 프레임워크이다.

SDGs 채택 이후 처음으로 열린 'Post-2015 발전 아젠다에 관한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은 2016년 7월이었으며, 당시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포럼을 이끌었다. 2030년까지 이 포럼을 통해 새로운 발전 아젠다에 대하여 각국 고위급의 활발한 참여와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개작업반

Rio+20 정상회의에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SDGs의 우선 과제를 제안하는 데 책임자 역할을 하는 회의체이다. 공개작업반은 70여 개 회원국과 총 30석의 의석으로 이루어졌다. 공개작업반은 2013년부터 매달 공식 회의를 갖은 후 2014년 7월에,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공식적으로 발의하였다. 대한민국 또한 공개작업반의 회원국이었다.

SDGs 지표 전문가그룹

SDGs 지표 전문가그룹(Inter-Agency Expert Group on SDGs indicators, 이하 IAEG-SDGs)은 Post-2015 발전 아젠다를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의 일환으로 2015년 6월에 발족되었다. IAEG-SDGs는 총인구 수, 아동 취학률, 실업률, 여성의 경제 활동 비율 등, SDGs 이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지표 제안, 방법론 개발, 평가하는 등 지표를 다루는 역할을 한다. IAEG-SDGs는 총 27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결정된 사안을 유엔 통계위원회에 보고 및 제안한다.

유엔 통계위원회

유엔 통계위원회 (UN Statistical Commission)는 전 세계 현안에 관한 통계를 다루는 유엔의 한 기관으로 유엔 회원국의 통계청 및 통계자료 수장들이 모여 국제 지표에 대해 논의한다. 2015년 3월 통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과를 측정할 지표의 첫 초안을 발표하였고, 이는 Post-2015 발전 아젠다를 위한 정부 간 협의와 IAEG-SDGs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다.



2014.07 공개작업반의 SDGs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제안

2012년부터 3년간 공개작업반은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사회 취약 계층의 정의 등에 힘을 쏟았다. 2014년 7월에는 이러한 사항을 정리하여 국제 사회에 제안하였고, 이를 토대로 차후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4.12 POST-2015 발전 아젠다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의 종합 보고서 발표

2014년 12월 4일에 발표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최종 보고서 '2030까지 존엄을 향한 길: 빈곤 퇴치, 삶의 변화 그리고 지구 보호(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에서는 SDGs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6가지 필수 요소(사람, 지구, 파트너십, 존엄, 번영, 정의)와 데이터 혁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개작업반에 의해 제안된 17개의 목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SDGs 달성을 위한 금융 및 정치적 틀을 정리하는 등 Post-2015 발전 아젠다 협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4대 축(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이 균형 있게 어우러진 아젠다 채택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으며, 과학에 기반을 두고 실천 지향적인 SDGs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증진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종합 보고서는 국제 사회가 SDGs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공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각국이 명확한 비전을 갖고 이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2015.09 지속가능발전목표 협상 최종안 채택

Post-2015 발전 아젠다를 위한 정부 간 협상은 2015년 7월에 마무리되었다. 이를 채택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은 2015년 9월 세계의 변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공식 채택하였다. 이 발전 아젠다가 채택될 당시 세계 각국 정상, 프란치스코 교황, 시민사회 및 과학계 대표, 언론, 민간 대표를 포함해 약 130명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여 SDGs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평가 방법

SDGs의 이행은 지표들을 통해 평가한다. IAEG-SDGs가 정한 지표들은 유엔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 데이터 수집, 분석된다. 통일된 지표를 통해 국가 간, 지역 간, 국제적인 이행 현황을 비교 및 분석 평가할 수 있다.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의 보고서 및 주제별 보고서를 통해 이행 진도 및 성과를 다양한 차원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재정지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2015년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국가·국제적 모든 재원을 동원하고 각각의 재원이 갖는 고유기능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에 각국이 합의하였다. 모든 재원은 계획된 용도에 충실히 사용되어야 하나, 일부 상호보완적인 특성을 지니도록 하여, 계획에 차질에 없도록 각국 및 각 이해관계자들이 고민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 동원 방안 및 효과적 재정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무역, 조세, 금융시장의 안정화, 부채, 개발 협력 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새로운 발전 아젠다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각 국가 계획 및 정부의 정책 실행 계획에 SDGs를 반영해야 한다. SDGs의 실천 목표들은 한 국가가 처한 주요 해결 과제들(경제성장, 빈곤, 인프라, 교육, 에너지, 물, 환경, 소비, 생산 등)과 전적으로 맞물려 있으므로, 국내 추진 과제와 SDGs가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전략적인 실행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때 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에 대응하는 국내 계획 및 현 정책을 검토하고, SDGs의 포용성·통합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 국가 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관련 정책으로는 녹색성장5개년 계획,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산업기술혁신계획, 환경보전종합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등이 있다.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공포되었으나, 법의 위계가 타 계획에 비해 낮고, 국가 계획을 모두 포용하기에 내용적 한계가 있다.

신속하고 성공적인 SDGs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폭넓은 발전 목표를 관장하고, 각 부처간 협력을 증진시킬 위원회가 필요하다. 경제, 사회, 환경 및 관련 부처와 이에 관련된 전문가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로 국내 실정에 맞는 SDGs 재해석, 국내 지표 정리,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공적인 SDGs 이행을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 또한 필수적이다.

빠른 시일 내에 SDGs가 공식적으로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국내 정책에 SDGs 프로젝트 및 전략을 도입한다면,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고, 이는 곧 다양한 기회로 이어질 것이며, 무엇보다 한국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돋움일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환경적 측면에서 바라본 지속가능발전목표

인류의 개발 및 발전 목표에 자연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인류의 안녕과 직결된 지구 환경



해양 생태계와
연계된 전 세계 일지리의
개수는

6억6천 개
에 달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빈곤을 퇴치하고 건실한 경제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환경 보전이 필수적이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 자원이 고갈되며,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점 더 커진다면 인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경제 성장 및 사회 복지 등에 있어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전 세계 극빈층의 생산활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다면, 그 중 89%는 자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경작에서 꽃가루 매개체(화분수)가 미치는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연간 1천 890억 미국 달러(한화 약 210조 8천억 원)에 이르며, 생물학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유전물질은 의약품 시장에서 약 3천 200억 미국 달러(한화 약 257조 원)의 가치를 생산한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농작물의 35%는 곤충들의 수분 활동에서 생산된다. 해양 생태계를 이용한 일지리는 전 세계적으로 약 6억 6천 개에 달하며, 산호초는 전 세계 (자연 및 인공) 어장의 12%가 지속적으로 어업활동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세계자연기금(WWF)이 참여한 연구에 따르면 해양의 경제적 가치는 2015년 한 해, 무려 24조 미국 달러(한화 약 2경 6,772조 원)에 이른다.

인류에게 미치는 환경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매년 생물학적 다양성 감소 및 환경오염으로 570억 달러(한화 6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지속한다면 2050년에는 손실액이 무려 16조 달러(한화 약 1경 7,848조 원)에 이를 것이다. WWF의 '지구생명보고서 2014 (Living Planet Report 2014)'에 따르면, 1970~2010년 사이 감소한지구의 생물학적 다양성은 52%이다. 같은 기간 내에 담수생물은 무려 76%가 감소하였으며, 해양생물과 육상생물은 각각 39%가 줄어들었다. 총 26억 7천만 명이 거주하는 200여 개의 하천유역에서는 매년 한 달 가까이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감소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류는 물, 공기뿐 아니라 경제, 식량, 의료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지구 환경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현 인류를 위한 자연의 기여도와 자연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여실히 드러내는 예 중 일부에 불과하다. 생태계와 자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이용, 보전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인류의 경제와 안녕은 붕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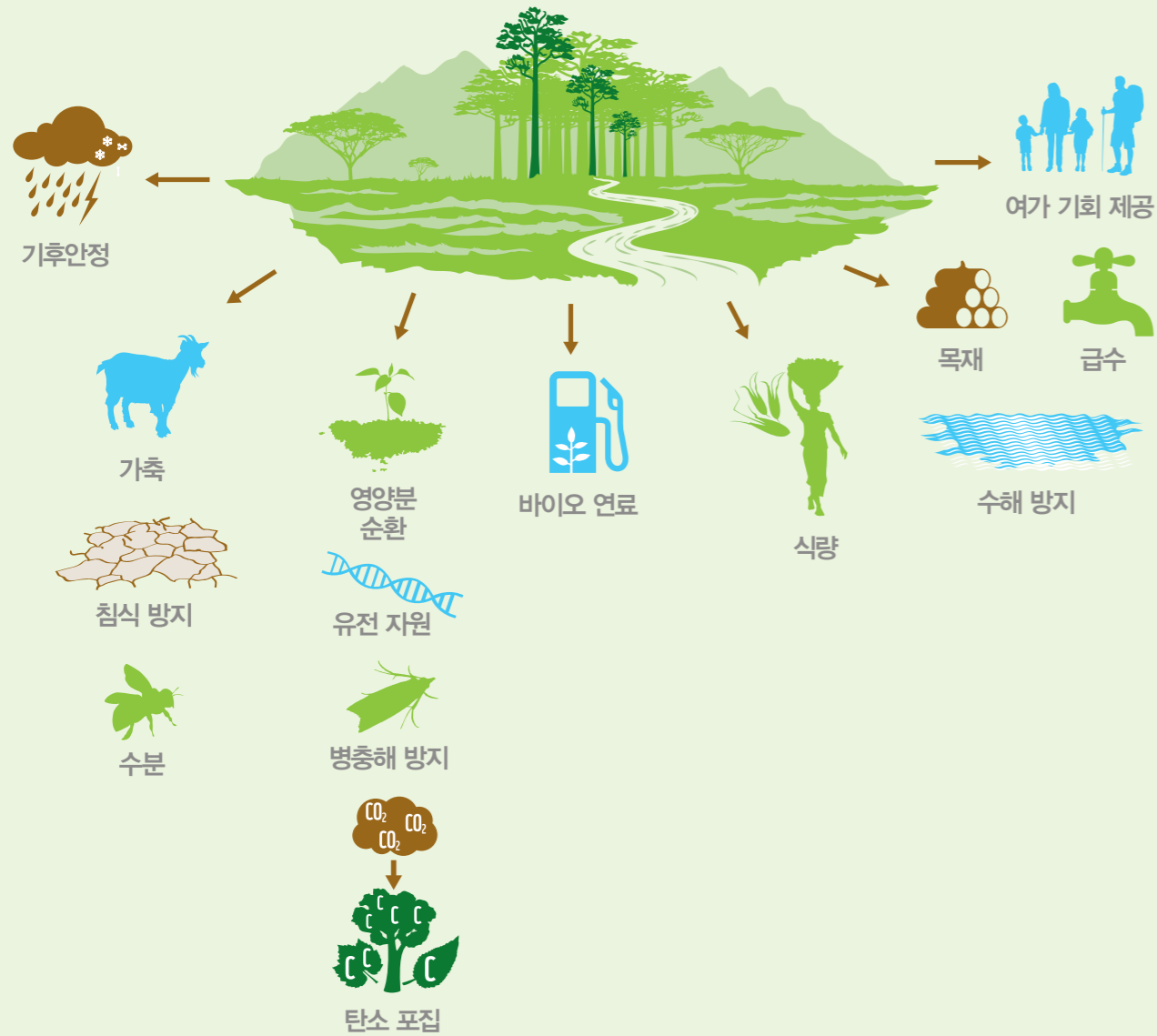
Post-2015 발전 아젠다의 성공적 이행과 인류의 안전한 미래 건설은, 사회·경제적 혜택이 자연 보전과 환경 지속가능한 경영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가능하다. 경제 성장, 사회 번영,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는 17개의 SDGs 목표는 인류에 해법을 제시하는 발전 패러다임의 시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국내외 범위에서 SDGs를 적극적으로 도입 및 이행해야 하며, 기업, 학계, 시민사회 및 일반 국민 또한 관심을 두고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류의 생명과 생태계

환경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물과 식량 부족, 기후변화의 영향에 특히 취약한 계층은 바로 빈곤층이다.

인류의 생존과 안녕은 천연자원(깨끗한 물, 경작지, 충분한 어획물, 목재 등)과 생태계서비스(수분 활동 및 양분 순환 등), 생태 작용(침식작용 방지,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등) 등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천연자원이야말로 식량, 물,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 사회·경제적 혜택을 공정하게 배분한다. 즉, 생태계를 발전 계획 및 이행의 중심축으로 두어야 사회 불평등을 줄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지구는 오직 하나뿐이다. 국가, 공동체,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개인 모두가 자연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환경을 고려한 생산, 현명한 소비, 지속가능한 사업에의 투자, 자원의 공정한 운용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Andy Kenthorly / WW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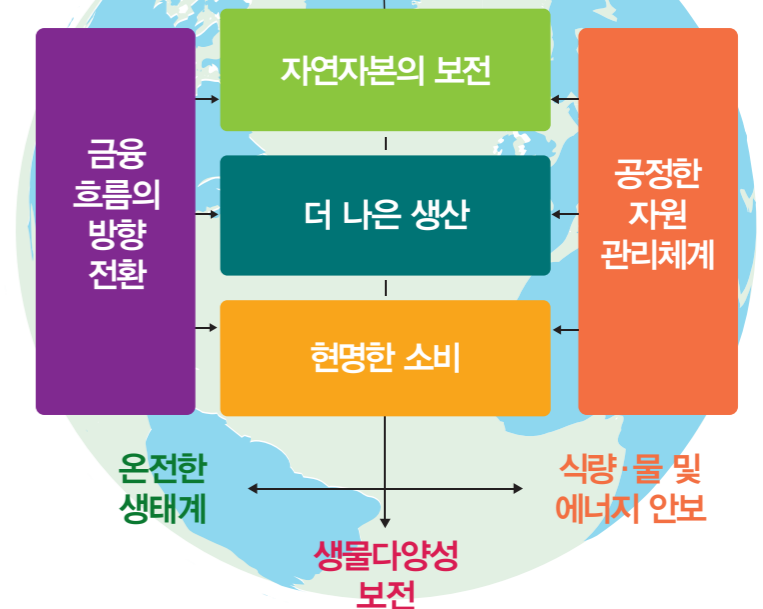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환경성을 측정하는 지표

세계자연기금(WWF)은 국제·지역·국내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 제안, 정책 권고 등 다양한 활동으로 SDGs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안타깝게도 환경에 관련된 지표 중 많은 수의 지표가 자료 부족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논의 중인 환경 지표 중 WWF가 지지하거나 덧붙여 제안하는 (SDGs의 17개 발전목표 각각에 해당하는) 환경 지표를 다음 장에 소개하였다. 이러한 지표는 사회·경제적 이슈가 환경문제와 근본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환경적 요소가 새로운 발전 아젠다 전반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나타낸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지구의 수용 범위 내에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자연자원을 관리·활용·공유할 수 있기 위한 지구는 하나라는 시각(One Planet Perspective)을 제안하였다. 이는 경제 전망과 개발 전략, 사업 계획과 투자 결정, 일상생활에서 지구의 환경과 자원을 고려하여 더 나은 선택을 제시한다.

더 나은 선택

'지구'는 하나라는 시각



지속가능발전목표

세계자연기금(WWF)이 지지·제안하는 SDGs 환경 지표¹

01

빈곤 퇴치

- 생태계 재화 및 서비스에 직접 의존하는 공동체의 건강과 복지 수준
- 환경 측면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의 빈곤 계층(예: 담수, 깨끗한 공기 등에 접근이 어려운 빈곤층)을 지원하는 계획 비중



02

기아 종식과 지속가능한 농업

-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을 도입한 농지의 비율
- 식량에 사용되는 동식물 중 종장기 보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생물종 수



03

보건과 복지

- 환경적 위험 요인(식수 오염) 및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연간 사망률 및 질병 발생률



04

양질의 교육

-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로 통용)을 교과 과정에 반영한 학교 수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양성 평등, 인권에 대한 교육 현황 (학생 및 교사를 위한 교과 과정, 교육 정책 반영 현황 등)



05

양성 평등

- 지역 공동체 (토착민, 부족, 도시민 포함)의 남녀 간 토지 소유권 형평성을 보장하는 법 체제가 마련된 국가의 비중



06

물과 위생

- 담수 소비량과 가용 담수의 양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현황
- 안전하고 생태 유기적인 방식으로 정화되는 오폐수의 비율
-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생물다양성이 보전되는 담수 지역의 비율



07

에너지

-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 클린에너지 기술과 인프라를 위한 공공·민간 자원과 국제 협력 현황
- GDP 대비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신기술,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액



08

일자리와 경제성장

- 관광에 의한 수입 중 직간접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사회 번영,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된 자원
- GSTS(Global Sustainable Tourism Council)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관광 비율
- 인류의 자원 소비 현황을 나타내는 물질 발자국(material footprint) 크기



지속가능발전목표

세계자연기금(WWF)이 지지·제안하는 SDGs 환경 지표

09

혁신과 인프라

- 부가 가치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친환경 산업 현황 측정)
- 비도시화 지역에서 기상 및 계절에 관계 없이 이용 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설계된 도로가 거주지 2km 이내에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

지속가능한 도시

- 도시 폐기물의 감축, 재활용, 적절한 방식으로 배출하는 비율
-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의 보전·보호를 위해 지출된 모든 형태의 자원
- (성별, 나이, 장애 유무에 관계 없이) 대중 교통 시스템을 간편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인구 비율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관한 정책을 이행하고, 우선 과제로 두는 국가 정부 및 지역 공공 기관 수
-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
- 자원 재활용 비율 및 무게 (톤), 부적절하게 관리되는 폐기물의 비율



13

기후변화 대응

- 저탄소 혹은 탄소 제로,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재난위험 감감 등의 요소를 반영한 발전 전략을 이행하고, 기후재원을 마련한 국가 수
-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반영한 국내 교과 과정 제도 수



14

해양 생태계

- 불법·비보고·비규제 (IUU) 어업 근절 현황
- 부영양화 지수,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포함) 잔해 밀도
- 생태계 기반의 접근법으로 관리하는 해양 비율 (배타적 경제 수역 및 국가 관할권 외 해양 포함)



15

육상 생태계

- 생물다양성을 위한 아이치 목표(Aichi Target) 달성 전략 계획 및 이행
- 생물종 개체 수를 추적하는 지구생명지수(Living Planet Index), 세계자연보전연맹(UCN)의 '레드 리스트(Red list)' 현황
-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현황(%)과 이를 위한 정책, 법률 수 및 환경기금



16

평화와 정의·제도

- 생물종의 불법 거래와 관련한 불법 금융 사건 발생 건수
- 생물종의 불법 거래와 관련한 비리 및 뇌물수수 발생 건수



17

파트너십

- CBD와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범주 내에서 실행되는 생물다양성 및 기후와 관련한 자원 조달 및 재정지원 이행 현황
- 사회·환경·경제적 목표를 포괄하는 국가 전략 수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 및 예산, 국제 협력 현황



1. 이행범위에 따라 각 목표에 해당하는 일부 지표들만 소개하였다. 10번째 목표의 경우 WWF 글로벌 네트워크의 분야별 대표들에 의해 별도로 제시된 지표가 없는 관계로 표기를 생략하였다. WWF가 지지 혹은 제안하는 지표가 채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의 지표들을 통해 환경적 측면이 각 목표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계자연기금(WWF)

2016년 WWF는 단체 구조 및 보전 프로그램 전략을 새로 개편하였다. WWF의 새로운 프로그램 구조는 총 6개의 목표와 3개의 동력(드라이버)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력은 6개의 글로벌 목표 전반에 걸쳐 있으며, 자연자원 고갈을 막고 사회에 긍정적이고 강력하며 지속가능한 체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3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우리 사회가 SDGs를 달성하는 데에 보탬이 되며,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

기후변화에 회복력있는 공정한 저탄소 사회 구축



해양

생산적이고 회복력있는 해양생태계 도모와 이를 통한 인류의 생계수준 향상



야생동물

생물 개체 수 회복 및 종 보전



산림

산림 보전과 이를 통한 인간의 웰빙 증진 및 유지



담수

사람과 자연을 위한 담수 보전



식량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 마련



시장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로 전환



금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공/민간 자원 증가



거버넌스

목표를 달성하는데 바탕이 되는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정책 강화



It's time to act.
Together, Possible



숫자로 본 지속가능발전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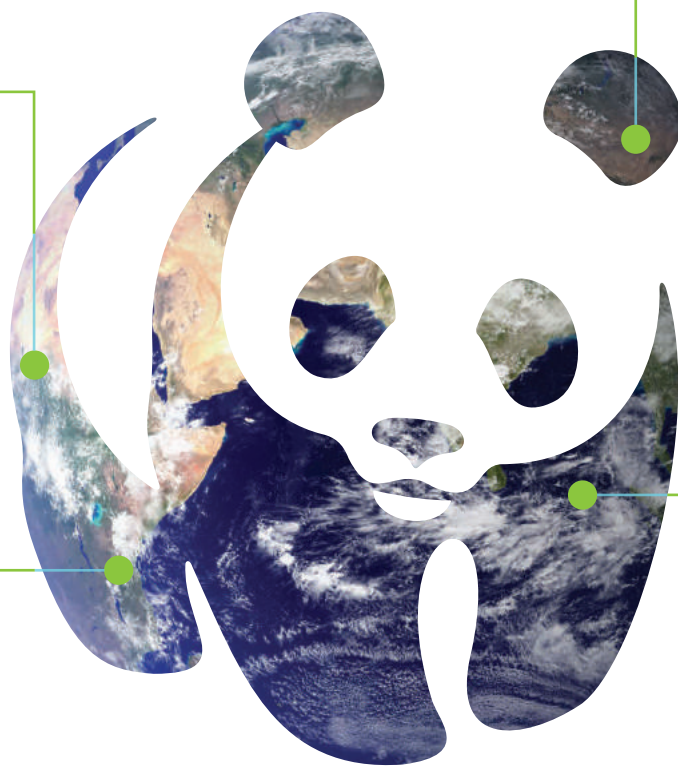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numbers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이행해야 하는 발전 목표이다.

17/169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193

국가의 소득 혹은 경제 발전 상태와는 상관없이 193개 유엔 회원국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이행해야 하는 발전 과제이다.

2015

2015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에 더불어, 개발재원총회(FID),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UNFCCC) 등 인류의 안전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p>세계자연기금</p>	<p>세계자연기금(WWF)은 지구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일하는 세계 최대 자연보전기관입니다.</p> <p>wwfkorea.or.kr</p>
---	---